9_6_한국어_勾当内侍の墓

고토 나이시 무덤

1336 년, 닛타 요시사다 [?-1338]는 아시카가 다카우지 군에 패하여 지금의 후쿠이현으로 향하던 도중에, 부인인 고토 나이시를 이마가타타에 남겨 두었습니다. 1338 년에 요시사다가 전사한 것을 들은 나이시는, 너무 슬픈 나머지 가까운 호수 벼랑에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이시를 가엽게 여겨 무덤을 만들고, 1497 년에 노가미 신사를 건립했습니다.

나이시의 명일에는, 현재도 진혼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